

5월 11일(월) / 읍40-42

▶내용요약: 40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끝까지 주장하면서도 진퇴양난의 절망적 상황에 놓인 읍과 대화하신다. 읍은 자신의 미천함을 고백하며 다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읍으로 하여금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의 한계를 분명 깨닫고 자신의 위치에 겸손히 머물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것이다. 41장은 하나님께서 악어(리위야단)를 통하여 읍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내용을 적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어를 잡을 수 없을까 또 악어의 무서운 모습을 통하여 인간의 교만을 깨우치고 계신다. 42장은 읍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서 자신이 행한 일들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모든 허물을 참회한다. 읍으로 세 친구의 죄악을 해결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명함으로 모든 논쟁의 최종 결말을 내리신다. 이어 참회한 읍의 삶을 배나 복되게 하심으로 아픈 과거를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신다.

- ▶질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읍의 교만을 깨우치시는가?(41편)
- ▶생각하기: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낸 읍은 이전 보다 배나 복을 받는다. 삶의 고난에서도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 나가자.

5월 14일(목) / 시9-12

▶내용요약: 9편은 다윗이 암몬족속을 정복할 상황(삼하12:26-31)을 배경한 시로 원수들을 물리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노래하며, 악을 행하는 인생들에게 심판하시며 영영히 승리하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기록한다. 10편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신론자들의 발에 짓밟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아픈 호소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당신을 의뢰하는 자의 호소에 귀 기울이신다는 확신을 노래한다. 11편은 악인들의 위협에 쫓겨야 하는 위태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의인의 탄식과 질문 및 그에 대한 신앙적인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12편에서 거짓과 꾀술이 횡행하는 현실을 슬퍼하며 시인은 자신의 신앙, 도덕적 순결성을 강조하며, 아픈 현실 속에서도 의인을 안전하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한다.

- ▶질문: 악을 행하는 인생들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이는?(9편)
- ▶생각하기: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은혜이다.

5월 17일(일) / 시21-24

▶내용요약: 21편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노래로서, 20편과 짝을 이루고 있다. 앞장이 승리를 간구하는 기원의 노래라면, 20편은 국가적 축제나 절기의 때에 불려졌다. 1-7절은 왕 자신이 여호와께, 8-12절은 백성들이 왕께, 마지막 13절은 송영이다. 22편은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의 고난의 내용과 견줄만한 것으로 수난과 온갖 수치를 당하심에 대한 메시아의 탄식과 그분의 처절한 고난 및 마침내 얻게 될 메시아의 위대한 승리를 노래한다. 23편은 많은 시편

5월 12일(화) / 시1-4

▶내용요약: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자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룬다. 바로 인간이 행복하게 되는 길이 무엇이며 불행의 원인이 무엇임을 밝히고 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과 동행할 때 영원한 복과 은혜가 따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악인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한다. 2편은 교만하며 악을 피하는 세상 권세 자들의 어리석은 행각, 기름부음받은 자 곧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인준과 그에 대한 절대적인 후원, 여호와 경외와 메시아에 대한 순복을 명한 사실을 적고 있다. 3편에서는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며 달려드는 수많은 적들의 비난으로 인해 탄식했으나, 곧 그 같은 역경을 딛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더욱 확고해간 사실을 노래했다. 4편은 다윗은 비록 위협과 곤란을 만났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사실을 찬양했다.

- ▶질문: 시편1편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 달렸다고 말하는가?
- ▶생각하기: 시편기자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가?

5월 15일(금) / 시13-16

▶내용요약: 13편은 극심한 고통과 영적 상실감으로 비탄에 놓여있는 시인의 아픈 고백, 그럼에도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인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질 구원으로 인해 찬송과 감사를 아끼지 않은 시인의 기쁨을 기록한다. 14편은 53편의 내용과 흡사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모든 악행의 근저에 무신론이 도사리고 있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와 구원이 되심을 찬송한다. 15편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예배자의 적합성에 대해 소개한다. 정직하고 성결한 언행,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 이웃과의 건전한 관계유지등이다. 16편에서 다윗은 오직 유일한 복이 디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피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된 실상을 소개한다.

- ▶질문: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는 자를 무엇으로 부르는가?(14편)
- ▶생각하기: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학벌이 없고 모자라는 사람일까?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고 말하는 자라고 선포한다. 하나님 없이는 삶, 그것이 모든 무지와 우행의 근본임을 알아야 한다.

중 특히 애송(愛誦)되는 시로서 두 개의 산 사이에 펼쳐져 있는 푸른 초장의 노래이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서정적이고 목가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삶으로부터의 도피나 안주의 차원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잔잔한 심령의 기쁨과 평안을 노래한 영혼의 시이다. 24편은 ‘시온 산 왕(王)의 노래’로 불리는 다윗의 시이다. 즉위 후 기뻐하여아람에 있던 법궤를 다윗이 시온 성 으로 메어 올리면서 각종 악기에 맞춰 부른

5월 13일(수) / 시5-8

▶내용요약: 5편에서 다윗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보호와 악인들에 대한 준엄한 징벌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의인들이 누리게되는 행복에대해 노래하고 있다. 6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영육간 쇠해져있던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공훈과 자비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사실을 애통해하며,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을 토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한다. 7편 전반부는 자신의 무죄성을 강조하고 그럼에도 원수들이 계속 자신을 위협하는 일대에 대해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을, 후반부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사악한 일을 도모함을 기록한다. 8편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며 미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돌아보시고 영화롭게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 ▶질문: 다윗은 미약한 인간을 돌보시고 영화롭게하신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했나?(8편)
- ▶생각하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가슴에 되새기며 우리를 돌보시고 영화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5월 16일(토) / 시17-20

▶내용요약: 17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껏 신실했음을 고백하고,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며, 악인들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고발하고 여호와께 다시 한 번 확실한 구원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18편 삼하22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 승리의 감사 시이다. 다윗은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전능하신 하나님의 탁월한 구원행위를 고백한다. 19편은 다윗의 시로 하나님의 계시를 두 종류로 분류하여 노래했는데 자연 속에 계시된 일반계시요(1-6절), 또 하나는 성경 속에 계시된 특별계시이다(7-14절). 20편은 대적과의 전쟁에 직면하여 출전을 앞두고 왕이 군대와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승리 기원의 제사를 드릴 때 함께 올리는 간구의 기도이다.

- ▶질문: 하나님의 두 가지 계시는 무엇 무엇인가?(19편)
- ▶생각하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베푸신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의 심령에는 그 어떤 위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찬송을 할 수 있다.

노래이다(대상13:8). 본시는 왕의 개선식을 연상시킨다. 본시는 승전절에 즐겨 낭송되었다.

- ▶질문: 다윗은 왕으로 즉위 후 법궤를 어디로 옮겼는가?(24편)
- ▶생각하기: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안된다. 날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이루며 그분의 뜻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역시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말자(시24:3-4절)